



단순신화의 단군 왕검의 고의 (古義)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Dangun and Wanggum in the Myth of Old Chosun

저자 (Authors)	허호익 Ho Ik Hur
출처 (Source)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1) , 2000.06, 343-371 (29 pag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7(1) , 2000.06, 343-371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기독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7722
APA Style	허호익 (2000). 단순신화의 단군 왕검의 고의 (古義)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7(1), 343-37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1 14: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단군신화의 단군 왕검의 고의(古義) 연구

허호익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I. 머리말

1985년 서울시가 사직공원 안에 단군성전을 건립하려고 계획하다가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¹⁾ 최근에는 한문화운동연합에서 전국 초중고교와 공공장소에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368기를 건립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²⁾ 단군상 건립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동방에 찬란한 정신문화를 꽃피웠던 동이배달 겨레의 유구한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실로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B.C. 7197년 중원대륙 천산에 안과 견 한인(환인, 桓人) 천제께서 하늘로부터 천부삼인을 받아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셨으니 국호는 한국(한국, 桓國)이다. 한국(한국)의 마지막 왕이신 지위리 한인(환인) 천제께서 B.C. 3898년 태자(거발한)에게 천부삼인과 천부경을 하사하시니 이를 받아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천산에서 삼위 태백산 기슭으로 옮겨 신시를 세우고 국호를 ‘배달’이라 선포하셨다.

- 1) “단군성전 건립 관계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것. 윤이훈 외(1997), 『檀君-그 이해와 자료』(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649-671.
- 2) 허호익(1999), “단군상 건립에 따른 논란”, 『청풍』 2(대전신학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41-259. 1999년 2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단군상 건립과 관련된 논쟁일지를 참고할 것.

18대 거물단 한웅(환웅) 천황께서는 응족의 황녀를 황후로 맞아들여 태자를 낳으니 한배검(왕검) 단군이시다. 한배검께서는 38세 되던 B.C. 2333년 수도를 아사달(오늘날의 백두산 기슭)로 천부삼인과 천부경을 이어받아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으로 조선(단군조선=고조선)을 세우셨다.

배달시대 18대 조선시대 47대의 제왕들은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큰 뜻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음을 볼 때 모두 성인 중의 성인이심이 분명하며 그 핏줄을 이어받은 배달겨레는 세계에서 찾기 힘든 유일한 문화민족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일제 식민시대에 이르는 약 2천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사실 6962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사관에 동조하여 단군 이전의 역사는 신화로 취급하여 성인이신 단군을 꿈의 자식으로 전락시키는 웃지 못할 현실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한가?³⁾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성명서를 통해 단군상 건립 주체측의 '건립기'에는 아직 국사학계의 학문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며, 국민들의 역사인식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근거로 민족 우월주의를 충동하거나 특정 종교의 경전이 명시돼 있어 그 건립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단군상은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처신함으로써, 단군상 문제로 빚어진 민족공동체의 갈등이 해소되고 열린 민족의식으로 세계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는 최근 단군의 신격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단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상고사에 대한 학문적 검토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은 자칫 반민족적 행위로 비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상고사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3) 이만열(2000. 3), "단군상 문제와 기독교의 대응", 『목회와 신학』, 226.

4) 『국민일보』, 1999. 10. 1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단군상대책위원회 편(1999), 『단군상문제 공청회자료집』.

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⁵⁾고 촉구하였다.

남한에서는 단군상 건립이 논란이 된다면, 북한에서는 단군릉 건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1963년 이후 공식적으로 신화적 인물로 그 역사성을 강력하게 부정해온 단군을 정치적 이유로 역사적 인물로 복권시켰다. 1993년 단군릉을 발굴하고 이를 대규모로 개축하고, 단군릉의 유물에 관한 구체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면이 더 강조되고 있음이 추측된다.”⁶⁾ 북한 당국이 단군전을 건립한 정치적인 의도가 북한 중심의 남북통일의 명분과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⁷⁾

실제로 단군신화에 관한 정확한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단군에 관한 기록이 무수하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⁸⁾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충렬왕 대(1275-1308)에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이승휴(李承休)가 쓴 『제왕운기』(帝王韻紀, 1287)와 『동국사략』(1403), 『세종실록지리지』(1454), 권근의 『응제시주』(應製詩註, 1462), 『동국통감』(東國通鑑, 1484),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530), 그리고 북애자(北崖子)가 지었다는 『규원사화』(揆園史話, 1675)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군인식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탐구도 진전되고 있다.⁹⁾

5) 같은 글.

6) 최몽룡(1997), “북한의 단군릉 발굴과 그 문제점”,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윤이홍 외 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94.

7) 이형구 편(1999), 『단군과 고조선』(서울: 살림터) : 김정숙(1997), “북한에서의 단군 연구”, 『단군 - 그 이해와 자료』, 윤이홍 외 편(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51-289; 최몽룡(1997), “북한의 단군릉 발굴과 그 문제점”, 같은 책, 290-289; 양태진(1997), “북한의 단군릉 제기, 그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 304(97. 4), 194-203; 이선복(1997),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21(97. 8), 43-57 : 조기수(1994), “주체사상론이 수정되고 있다: 미로의 주체사상에 단군신화 접목”, 『민족정론』, 12(94. 7), 89-98; 정영훈(1994),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북한의 ‘단군공세’”, 『북한학보』, 18(1994. 10): 221-247; 이흥환(1995), “신황에서 현시로 돌아온 ‘북한 단군’”, 『시사저널』, 303(1995. 8), 16-21; 임채욱(1998), “남북한의 단군인식과 통일문화형성”, 『극동문제』, 237(1998. 11), 91-106.

8) 윤이홍(1997), 385-695, 3부 단군관계 자료 참조.

9) 노태돈 편(2000), 『단군과 고조선사』(서울: 사계절), 157-182. 특히 “전통시대의 단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웅녀(熊女), 단군왕검(檀君王儉) 등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들이 옛 우리 말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옛 뜻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조차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최남선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단군신화 연구를 통해 주장해 온 다양한 해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단군과 왕검의 '옛 뜻'(古義)에 관한 견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¹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한성서공회)의 성명서가 밝힌 것처럼 한국교회가 단군신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먼저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작업이 필요하므로, 이에 자극을 받아 이 소론을 시도한다.

II. 단군(檀君·壇君)의 옛 뜻

1. 단목설(檀木說)과 신단설(神壇說)

단군과 관련하여 먼저 논쟁이 된 것이 壇과 檀의 문제이다. 1894년 일본학자 백조고길(白鳥庫吉)은 그 때까지 檀으로 표기되어 온 것에 근거하여 "단군(檀君)은 본래 불교의 전단(旃檀)의 정령(精靈)임을 의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단군신화를 한낱 불승(佛僧)의 조작이라고 주장한다.¹¹⁾ 나하통세(那珂通世)는 태백산 내지 묘향산에 강림하여 태어났다는 단군은 단향목(檀香木)의 정령으로 이것은 화엄경 등 여러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인도의 마라감산(魔羅耶山)과 그곳에 있는 전단목(旃檀木)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였다.¹²⁾ 이에 대해 최남선은 단목(檀木: 박달나무)

군인식"을 참고할 것.

10) 최남선(1928), "檀君神典의 古義", 『동아일보』, 1928. 1. 1-2. 28; 『육당 최남선전집 2』(서울: 현암사, 1973), 190-228. 『삼국유사』의 단군기를 축자적으로 주석(檀君記逐句解)한 최초의 논문이다. 허호익(1999), "단군신화의 환인·환웅·웅녀의 고의 연구", 『신학과 문화』 제8집, 153-178.

11) 이재원(1991), "단군신화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74

12) 최남선(1926. 3. 3), "檀君論", 『동아일보』; 『육당 최남선전집 2』, 84.

은 활엽수(樺木科)인데 반해 단향목(향나무)은 침엽수(松杉科)라고 반박하였다.¹³⁾

최남선은 삼국유사의 檀字가 본디 훈 '土' 변이었는데 “고려 말엽부터 단군의 檀이 문득 檀으로 변하여 이조 이후에는 오직 檀君으로만 문자로 오르고 또 이러한 文籍만이 전하게 된”¹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능화 역시 구체적인 문헌 자료를 통해 檀論에 가세하였다.¹⁵⁾

그러나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분명히 5군데에 檀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외에 『제왕운기』(1287), 『동국사략』(1403), 『세종실록지리지』(1454), 『응제시주』(1462), 『규원사화』(1675)¹⁶⁾ 등 대부분의 문헌에는 모두 檀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집할 수가 없다.¹⁷⁾ 그러므로 정약용이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檀·檀·檀은 서로 통용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신채호는 檀派나 檀派의 두 주장이 다 타당하므로 “檀이나 檀을 구태어 漢字로 쓴 것보다 우리의 純然한 한글로 ‘단군’이라 통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것이다”고 제안하였다.¹⁹⁾

최근 김태곤은 檀을 제정일치 시대의 제단(祭壇)을 반영한 후기적인 것이고 檀을 그보다 앞서는 신단수(神檀樹)로서의 신화적인 차원의 반영이라고 하였다.²⁰⁾ 신단수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우주목이나 세계목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상일은 “檀은 많은 점에서 무적(巫的)인 성격을, 檀은 선적(禪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²¹⁾고 하였다. 신명이 오르

13) 같은 글, 100.

14) 같은 글, 100-101.

15) 이능화(1927), “古朝鮮 檀君”, 『東光』 12호: 『민족문화논총』 제1집(서울: 민족문화사, 1981), 130-133.

16) 신학균 역(1973), 『檀園史話』(서울: 명지대출판사), 45. “檀君이란 박달임금을 번역한 것이다. 대개 신씨 씨가 단목 아래 내려 오시고 환검신인이 다시 檀木 아래서 임금의 자리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17) 이재원(1991), 78. 문서 목록을 참고할 것.

18) 최남선(1926), “檀君論”, 86.

19) 신채호(1972), “檀君史考覽”, 『신채호전집 하권』, 405.

20) 김태곤(1985), “무속상으로 본 단군신화”, 이은봉 편, 『단군신화연구』, 160-161.

21) 김상일(1988), 『한밝문명론』(서울: 지식산업사), 212.

도록 하는 측면은 무적인 것이고, 신명이 내리도록 하는 측면은 선적인 것인데,²²⁾ 하늘의 신명(神明)을 받아 무가 되고(檀君), 백성을 대표하여 신명(神明)을 올리는 제사를 지내다(壇君) 왕이 된 것이라고 한다.²³⁾ 이재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檀—壇—堂’의 과정으로 발전한 것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고 종합하였다.²⁴⁾

2. 단군 신인설(神人說, 大倮說)

『용비어천가』(1445),²⁵⁾ 『동국통감』(1484),²⁶⁾ 『조선사략』²⁷⁾ 등에는 신인(神人)이 단목(檀木) 아래 내려오니 사람들이 군장으로 삼았고 그가 바로 단군이라고 한다.

신인이신 단군을 가장 강조하는 입장은 단군 계통 종교들이다. 1909년 1월 15일 나인영(羅喆) 등이 ‘단군태황조신위’(檀君太皇祖神位)를 모시고 제를 올리며 “단군교포명서”(檀君敎抱明書)를 공포함으로 단군교를 세웠다. 그러나 일제의 단군말살책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10년 7월 3일 교명을 대종교(大倮敎)로 개칭하였다. 고어(古語)에 신인(神人)을 종(倮)이라 했기 때문이다. 대종교의 ‘선도문’(宣道文)에는 단군을 신인이라 선언한다.

“우리 大倮敎는 神人 檀君께서 4천년전 인간을 弘益키 위하사 三眞諦—의 眞理를 밝히시고 化衆成哲의 宗門을 열으신지라.”²⁸⁾

그리고 이 신인이신 단군을 우리 민족의 대조상신이라는 뜻에서 ‘대조신’(大朝神)이라 하고 우리말로로는 ‘큰 할배 신’이란 의미에서 ‘한배

22) 같은 책, 204.

23) 같은 책, 217.

24) 이재원(1991), 81.

25) 神人降于檀木之下 國人立爲君是 都平壤 號檀君

26) 有神人降於檀木下 國人立爲君是爲檀君

27) 國人推戴神人爲君 定國號曰檀

28) 진용하(1997),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윤이훈 외, 『단군—그 이해와 자료』, 198.

검'이라 하였다.²⁹⁾ 따라서 대종교의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에서는 한 임·한웅·한검을 천신(造化主)·지신(教化主)·인신(治化主)이라고 해설한다.³⁰⁾ 단군을 신인(神人) 또는 인신(人神)으로 본 것은 기독교 신학의 기독교론에서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녔다는 양성론(兩性論)과 비교하여 검토할 만한 주제이다.

3. 단군뽕 신설(天君說)

단군기에는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신시를 도읍하였고, 웅녀가 단수에 빌어 환웅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단군 관련 옛 문헌에는 환웅의 '신단수 도읍'과 웅녀의 '단수 기원'과 단군의 '단'은 같은 문헌에는 모두 檀이나 壇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단의 옛 뜻에 따라 단군의 의미가 밝혀지게 된다.

최남선은 1918년 "계고답존(稽告劄存)"에서 처음으로 檀을 浬의 음역(音譯)으로 해석하였다. 태백산의 백(伯)과 단군 및 신단수의 단(檀)의 옛 뜻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檀)은 '박달' 혹은 '배달'이라고 훈독(訓讀)하고 이는 태백산(太伯山)의 백(伯)과 어원(語源)이 같다고 분석한다.³¹⁾ 1925년 "불함문화론"³²⁾ 이후로는 단(壇)이 바로 백(白, 伯)의 뜻이라고 하였다. 백(白)이란 'Pärk'(북)의 대자(對字)이며, 북(Pärk) 또는 북은(Pärkän)은 태양(天)을 일컫는 말이다.³³⁾ 따라서 북은 한이나 환으로도 통한다.

29) 같은 글, 201.

30) 이은봉(1997), "단군신앙의 역사와 의미", 윤이홍 외, 『단군—그 이해와 자료』, 314.

31) 최남선(1918), "稽告劄存", 『青春』 14호(1918. 6); 『육당 최남선전집 2집』, 17. 『계림유사』(鷄林類事)에 "단은 배달이요, 국은 나라요 군은 임검"(檀楮達 國那羅 君 壬儉)이라고 하였다.

32) 산해경(山海經)에는 "대황(大荒) 가운데 산이 있으니 불함(不咸)이며 속신국(肅慎國)이 있다"고 하였다. 백두산을 불함산이라고 기록한 것에 근거하여 불함문화론을 전개한 것이다.

33) 최남선(1925), "不咸文化論", 『육당 최남선전집 2』, 45; 안호상(1985), 140-141. 안호상은 밝은 밝음, 흰, 북음의 뜻이 있다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선의 古語에 天을 別로 燾이라고 하기도 하여, 光明을 天의 德으로 觀念한 證跡이 있음에 照하면 ‘한’이 ‘환’(곧 光明의 義)으로 통한다.”³⁴⁾

나아가서 “古代에는 특히 宗教的으로 Hanär 혹은 그 人格形인 Hañr-nim 보다는 Pärk 또는 그 活動形인 Pärkän(-ai)가 太陽을 稱謂하는 聖語로서 오히려 많이 사용된 듯하다.”³⁵⁾고 주장한다. 燾이 煥보다 더 오래 된 天(天)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어에서는 燾은 태양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古義에는 神·天 등이 있다.”³⁶⁾ 따라서 燾에서 유래한 단군(檀君)은 신군(神君) 또는 천군(天君)으로서 군왕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규원사화』에는 단군(檀君)은 박달, 혹은 배달을 뜻하는 단국(檀國)의 임금이라는 뜻이라고 규정한다.³⁷⁾

단(檀) : 배달, 박달 → 燾(天), 燾은

백(伯) : 한, 환 → 하늘(天), 하늘님(神)

단군(檀君) : 신군(神君), 천군(天君)

그 당시에는 하늘, 땅, 물, 산, 강 등의 구별은 있었으나 류의 개념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이면 큰 산, 작은 산으로 강이면 큰 강, 작은 강으로 구분하였다.³⁸⁾ 그리고 이 한燾이 ‘국명, 지명, 족명, 인명 등으로 차용된 것이다.’³⁹⁾ 최남선은 이러한 燾에서 유래한 다양한 어휘들이 산명, 인명, 국명 등에 음운변천하여 이두식으로 표현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34) 최남선(1926), “檀君論”, 98.

35) 최남선(1925), “不咸文化論”, 44.

36) 같은 글, 45.

37) 고동영 역주(1993), 『규원사화』(서울: 한뿌리), 47.

38) 강인숙(1995), “단군신화와 려사”, 이형구 엮음, 『단군과 단군조선』(서울: 살림터), 272.

39) 양주동(1942), 『朝鮮古歌研究』(경성: 박문서관), 4.

지명 : 長白, 小白, 白頭, 白岳, 白雲, 白巖 등⁴⁰⁾

국명 : 발해(渤海)의 원어 發解(Parkai),⁴¹⁾ 百濟(Pärk의 道)⁴²⁾

인명 : 신라의 혁거세의朴(Pak)과 弗桓內(Pärknu)⁴³⁾

남무(男巫)를 의미하는 박수(Paksu)와 박사(Paksa)⁴⁴⁾

신명 : 夫妻(Pur)⁴⁵⁾, 風流(Pur), 八關(Pärkän)⁴⁶⁾

이조의 府君(Purki) 또는 府君굿(Pukun-kut)⁴⁷⁾

이 고어 ㅂ이 수많은 이종(異種)을 만들어 내었지만,⁴⁸⁾ ㅂ(태백)산을 『山海經』에서는 불함산(不咸山)으로 표기한 것에 착안하여 최남선은 저 유명한 『불함문화론』(1925)을 전개하였다. 불함(不咸)은 'Buka · Buga'의 역사(驛字)인데, 이 역시 白(Pärk)을 뜻한다는 주장이다.⁴⁹⁾

양주동도 천(天)의 원어가 '한뵈'이라고 하였으며 태백산(太白山)은 '한뵈뵈'라고 설명한다.⁵⁰⁾ 안재홍 역시 최남선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하였다.⁵¹⁾ 안호상은 이 '한뵈은 이'(神明者)를 가르쳐 후대에 "천신(天神)께 비나이다, 신명(神明)께 비나이다"라는 말들이 생겨 난 것이라고 풀이한다.⁵²⁾

40) 최남선(1925), "不咸文化論", 44—45.

41) 같은 글, 53.

42) 같은 글, 59.

43) 같은 글, 58.

44) 같은 글, 54.

45) 신채호(1982), 『조선상고사』(서울: 인물연구사), 66. 『三國史記』高句麗本紀, 단군의 아들이 부부이다(檀君之後 有解夫妻). 신채호도 『삼국사기』地理誌에 나오는 백제의 夫里, 卑離는 다 '발'의 취음(取音)이라 하였다.

46) 최남선(1925), "不咸文化論", 58, 75.

47) 같은 글, 59.

48) 최남선(1926) "兒時朝鮮", 『조선일보』, 1926. 4.: 『육당 최남선전집 2』, 195.

(가) 발·벌·불·불·불·빌

(나) 박·빅·복·복·복·빅

49) 최남선(1918), 17.

50) 양주동(1942), 6—7.

51) 안재홍, 『阿斯達과 白岳, 平壤, 夫餘辨』, 『한국문화논총 1』, 230.

52) 안호상(1985), 『환웅, 단군, 화랑』(서울: 사립원), 148.

4. 단군 무군설(巫君說)

최남선은 ‘壇’을 북의 음역일 뿐만 아니라, 天을 뜻하는 대갈(Taigär r)의 한역(漢譯)이라고도 주장한다. 터어키와 몽고 등에서 天을 Tangri · Tengri라 표현한 사례를 제시한다.⁵³⁾ 조선어에서도 오늘날 머리를 뜻하는 Taigär(대갈)과 당굴이 고대에는 天을 표현한 어구였으며,⁵⁴⁾ 이것이 한문으로는 天(Tien) 또는 檀(Tan)으로 표기되었다.⁵⁵⁾

언어학적으로 고조선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몽고의 Tengri는 天과 巫(拜天者)를 의미한다.⁵⁶⁾ 삼한의 고기에도 “큰 마을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름하여 천군”⁵⁷⁾이라 기록되어 있다. 『한단고기』에서도 한인은 천신(天神), 한웅은 천왕(天王), 단군은 ‘천군(天君)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우두머리’라고 하였다.⁵⁸⁾

天(Tien) : 太一, 太乙, 泰一, 天極, 天皇⁵⁹⁾

檀(Tan) : ㄷ굴이념, ㄷ궤(大監)⁶⁰⁾

壇君 : ㄷ궤 · ㄷ궤(丹骨) · ㄷ궤애(巫堂), 巫君(拜天者)⁶¹⁾

양주동도 “북방(만주)어 天의 訓 텅거리는 震域에서도 사용된 듯하다”고 하였다. 문헌에 나오는 등격리(騰格里)와 등고(登高)가 이를 방증

53) 김택규(1959), “단굴 組織의 遼源의 考察-壇君神話를 中心으로 한 俗信體系 究明의 試圖”, 『어문학』 5, 85.

54) 최남선(1926), “不滅文化論”, 50 ; 최남선(1928), “壇君神典에 들어 있는 歷史素”, 『육당최남선전집 2』, 235.

55) 최남선(1926), “不滅文化論”, 67. Taigär과 Pärk 양 칭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는 太昊 伏羲(Taigär-Pärk)이다.

56) 같은 글, 60.

57) 같은 글, 60.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58) 李陌, 『太白逸史 神市本紀』 : 임승국 역주(1987), 『한단고기』(서울: 정신세계사), 184-185. 壇君亦曰天君主祭之長也

59) 같은 글, 66.

60) 최남선(1926), “兒時朝鮮”, 187.

61) 최남선(1928), “壇君神典에 들어 있는 歷史素”, 235.

한다.⁶²⁾ 그러나 김인서는 “‘등걸’은 나무의 왼뿌리인즉 우리 민족의 뿌리, 한 아버지를 의미한 듯하다”고 한다.⁶³⁾

일인학자 촌산지순(村山智順)은 1930년도의 한 조사에서 전국 각도에 무녀(巫女)와 무신자(巫信者) 사이에 ‘당골’이라는 특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 경우 무녀를 ‘당골무당’이라 하고 신자를 ‘당골집’이라고 한다.⁶⁴⁾ 여러 지방에서 무당을 ‘당굴, 단골, 당골, 단굴’에 라 하는데 이는 단군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김태곤은 단군이라는 용어 뿐만 아니라 단군신화의 내용적 구조가 성주 巫歌와 일치함을 분석하여 제시한다.⁶⁵⁾

5. 단군 소도단주설(蘇塗壇主說)

신채호는 최남선과 달리 단군을 소도(蘇塗)와 관련시켜 해석하였다. 조선족의 경우 고어를 참고하면 “왕성(王性)을 ‘해’(解)라 함은 태양에서 취함이요, 왕호(王號)를 ‘불구래(弗和內)라 함은 태양의 광휘를 취함이요, 天國을 ‘환’이라 함은 광명에서 뜻을 취함”⁶⁶⁾이라고 하였다. 조선족은 광명의 본원지인 “不滅山(今 白頭山)을 明月이 출입하는 樓宿으로 알아 그곳을 朝鮮이라 칭하니 이는 古語의 光明을 吏讀字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⁶⁷⁾ 그후 인구가 번식하여 각 거주지에 태백산(백두산)을 모방하여 수림(樹林)을 길렀으니 이를 ‘수두’라 한 것이다. 제단(祭壇)이나 신탑(神塔)을 의미하는 우리 말의 ‘수두간’이나 북만주 몽고말에 ‘수마’와 일본어 ‘소도마’는 모두 소도(蘇塗)의 전음(轉音) 또는 의음(訛音)이다. 『삼한사』(三韓史)에는 대목(大木)을 세우고 천군(天君)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을 소도(蘇塗)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년 5월과 10월에 수두에 나아가 제사를 할 때 제주를 뽑아 수두의 중앙에 앉혔는데, 이 수두단의 우두머

62) 양주동(1942), 8.

63) 김인서(1952), “檀君論”, 392.

64) 村山智順(1930), 『朝鮮의 巫覡』, 총독부 조사자료 제36집, 475—492.

65) 김태곤(1968), “巫俗上으로 본 檀君神話”, 『史學研究』 20, 151.

66) 신채호(1982), 88.

67) 같은 책, 90.

리가 바로 “단군”이라고 하였다.

『震壇九變國圖』에 보인 ‘震’은 ‘신’의 음역이며, 『삼국유사』, 『동국통감』, 『해동운옥(海東韻玉)』에는 단군(檀君) 및 단군(壇君)을 진단(震檀) 또는 진단(震壇)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수두壇, 祭天壇, 震壇의 壇主가 곧 단군”⁶⁸⁾이라고 하였다. 단군(檀君)은 바로 소도(蘇塗)의 신단(神壇)이나 제천단(祭天壇)을 모시는 군주(君主)요 단주(壇主)라는 것이다.

수두(수두간) : 蘇塗 > 神壇 : 震壇 > 壇主 : 壇君(수두 하느님)

6. 단군 다수설(多數說)

가장 큰 고정관념 중 하나는 ‘단군’을 한 개인을 지칭하는 고유 인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원사화』⁶⁹⁾, 『단기고사』⁷⁰⁾를 비롯한 『한단고기』의 「단군세기」에 보면 고조선 시대에는 제1대 시조 단군 왕검(王儉)에서 제47대 마지막 단군 고열가(古列加)까지 47명의 단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⁷¹⁾ 『한단고기』의 「북부여기」에는 시조 단군 해모수(解慕漱)에서 6대 단군 고무서(高無胥)까지의 역사⁷²⁾가 기록되어 있다. 따

68) 신채호(1972), 405.

69) 고동영 역주, 『我國史話』(서울: 한뿌리, 1993); 이상시(1990), 『檀君實史의 관한 考證』(서울: 고려원), 171-176.

70) 고동영 역주, 『檀奇古史』(서울: 한뿌리, 1993).

71) 임승국 역주(1987), 55-121. 제1세 단군 왕검, 제2세 단군 부루, 제3세 단군 가락, 제4세 단군 오사구, 제5세 단군 구울, 제6세 단군 달문, 제7세 단군 한속, 제8세 단군 우서한, 제9세 단군 이술, 제10세 단군 노을, 제11세 단군 도해, 제12세 단군 아한, 제13세 단군 홀달, 제14세 단군 고불, 제15세 단군 벌음, 제16세 단군 위나, 제17세 단군 여울, 제18세 단군 동엄, 제19세 단군 종년, 제20세 단군 고희, 제21세 단군 소태, 제22세 단군 색불루, 제23세 단군 아홀, 제24세 단군 연나, 제25세 단군 솔나, 제26세 단군 추로, 제27세 단군 두밀, 제28세 단군 해모, 제29세 단군 마휴, 제30세 단군 나휴, 제31세 단군 등울, 제32세 단군 추밀, 제33세 단군 감물, 제34세 단군 오투문, 제35세 단군 사벌, 제36세 단군 매륙, 제37세 단군 마물, 제38세 단군 다물, 제39세 단군 두홀, 제40세 단군 달음, 제41세 단군 음차, 제42세 단군 울우지, 제43세 단군 물리, 제44세 단군 구물, 제45세 단군 여루, 제46세 단군 보을, 제47세 단군 고열가.

72) 같은 책, 125-138.

라서 단군은 직책명이긴 하지만 고유한 인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일찍이 이익(1698-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단군은 단국의 임금으로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하였다.⁷³⁾ 신채호도 단군다수설을 주장하여 小壇君과 大壇君이 있었다고 한다. “— 수두에는 — 壇君”이 있어, 강적이 침입하면 각 수두 소속의 부락들이 연합하여 이를 방어하고 공이 가장 많은 부락의 수두를 제일위로 존중하여 ‘신수두(神蘇塗)’라고 하였으니, 坵은 최상의 의미이다. 따라서 ‘수두’의 단군은 小壇君이고 ‘신수두’의 단군은 大壇君이라는 것이다.”⁷⁴⁾

이상시는 47명의 단군의 사적에 관한 『규원사화』의 기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고대 사서(史書)와 일치하는 부분은 열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군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역설한다.

“단군, 단군입검 또는 단군왕검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박달나라의 입검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입니다. 시조 단군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단군은 한 사람일 수 없고, 그 자리를 이어받은 후손들도 모두 ‘박달나라 입검’이라는 뜻으로 계속 단군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⁷⁵⁾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이 평양 동쪽 강동 지역에서 단군릉을 발견했다는 보고에 대해 송호수는 그것이 어느 단군의 능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옛 조선의 47대가 모두 단군이요, 심지어는 단군 해모수, 단군 동명, 고구려 11세 ‘동천왕 역시 단군(東川帝亦稱檀君)’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단군릉이라면 어느 몇 대째의 단군릉인가 밝혀져야 하겠기 때문이다.”⁷⁶⁾

73) 노태돈 편(2000), 178.

74) 같은 책, 90.

75) 이상시(1999). “규원사화에 대하여”, www.ferrarisnu.ac.kr.

76) 송호수(1997), “단군사상과 민족운동”, 윤이홍 외, 『단군- 그 이해와 자료』, 372.

대종교의 김교헌도 북한의 강동룡에 문힌 단군은 47명의 단군 중 어느 후대의 단군능이지 처음 강립하신 개국조 단군의 능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였다.⁷⁷⁾ 같은 까닭으로 김성일은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을 이렇게 비판하였다.⁷⁸⁾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일개 직책명인 단군을 고유명사처럼 부르고 국조신으로 만들어 동상을 만드는 것은 난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민족정신을 창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신시키는 일이며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고집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수준 이하의 학문적 미개국으로 내외에 광고하는 일밖에 안 된다.

필자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화상을 걸거나 동상을 세우는 일에 찬성하지 않지만, 어떤 단체가 굳이 제1대 단군의 동상을 만들고 싶어한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마찬가지로 그 고유명사를 써서 고조선의 제1대 단군이었던 ‘왕검상’이라고 한다면 그럴 듯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군을 고유명사화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장차 학문을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는 일일 것이다.”

7. 단군 홍익인간 주창설

일반적으로 단군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주창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단군상 건립기도 단군의 홍익인간 주창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러하다.

“桓因(帝釋을 이름)의 庶子 桓雄이 있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人世를 탐하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 太白을 내려보매 人間을 널리利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天符印 三箇를 주어, 가서(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하였다. 雄이 무리 三千을 이끌고 太白山(태백은 지금 妙香山) 神檀樹 밑에 내려와 여기를 神市라. 이르기 이가 桓雄天王이란 이다.”

77) 같은 글, 374.

78) 김성일(1999), “‘단군상’의 지혜로운 해법”, 『국민일보』, 1999. 7. 13.

홍익인간의 이념은 환인의 뜻인지 환웅의 포부인지 논란이 되지만 본문을 보면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신시를 도읍하게 한 이는 환인이고 이를 시행한 이는 환웅이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통치이념은 단군왕검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최남선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위하여 천강(天降)한 환웅이 ‘신시’(神市)를 건설(建設)하고 천정(天政)을 집행(執行)’⁷⁹⁾하였다”고 한다. 임승국 역시 신시개천의 주인공이 단군이 아니라 환웅임을 강조한다.

“신시개천의 주인공은 환웅이다. 결코 단군이 아니다. 종래 이 점에 오해가 많았음을 지적해 둔다. 『삼국유사』도 또 『한단고기』의 기록도 역시 신시개천의 주인공은 환웅 천왕이지 단군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면 국경절의 하나인 개천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환웅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천절 행사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단군사화 운운하는 무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⁸⁰⁾

송호수는 “단군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환웅 대신 단군이 강조된 이유를 질문하고 “이것은 단군을 종교화한 측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⁸¹⁾고 하였다.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일제의 단군말살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한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한인(환인)이 환웅(환웅)에게 명한 것이다. 단군은 후에 이것을 계승한 것뿐이다. 즉 홍익인간은 단군시대에 창작된 것이 아니다.”⁸²⁾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삼위태백산이 홍익인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한 말을 한 장본인은 곧 환웅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환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의 발설의 시초는 한임이지 환웅도 아니요 물론 단군왕검도 아님을 여기서 명확히 알 수 있다.”⁸³⁾

79) 최남선(1928), “檀君及其研究”, 『육당 최남선전집 2』, 247.

80) 임승국 역주(1987), 33.

81) 윤이홍(1997), “단군문제에 관한 토론”, 711.

82) 같은 글, 712.

83) 송호수(1997), 355.

이정확은 단군설화에서는 환인뿐만 아니라 '홍익인간'이란 것도 불교의 사상이라고 하였다.⁸⁴⁾ 그러므로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기'의 한 배검(왕건) 단군이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큰 뜻을 가지고 조선(단군조선 = 고조선)을 세우셨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Ⅲ. 왕검(王儉)의 옛 뜻

1. 왕검 왕도설(王都說)

왕검은 『삼국유사』에 특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왕검이 한 번 나올 뿐, 『제왕운기』(帝王韻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왕검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다.

따라서 일본학자들은 왕검은 단군이 다스린 지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나하통세(那珂通世)는 "檀君의 名을 王儉이라 한 것은 平壤의 舊名인 王儉의 險字의 一扁을 改한 것"이라고 하였다. 금서룡(今西龍)도 『삼국사기』에 "평양은 선인 왕검의 지역(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이라 했으니, 단군은 평양성의 옛 이름인 王儉城 출신의 선인(仙人)의 지칭이라는 것이다."⁸⁵⁾

최남선은 '儉과 險'은 예전에는 음이 서로 통하여 혼용하였으며, 왕검의 '검'이 도읍의 뜻으로 쓰인 것을 시인하고 그 사례를 들었다.⁸⁶⁾

기자(箕子)⁸⁷⁾가 남천(南遷)하여 도읍한 곳 : 금말(金馬)⁸⁸⁾

신라의 古都 : 金城

84) 김정학(1954), "檀君說話와 토오데미즘", 「역사학보」 7, 280.

85) 최남선(1926), "檀君論", 86.

86) 같은 글, 109.

87) 최남선(1929), "朝鮮史의 箕子は 支那의 箕子が 아니다", 「奇怪」 제2호 : 「육당 최남선 전집 2」, 367. 최남선 箕子朝鮮의 종래의 명칭 "'マロジ'는 곧 日子(곧 太陽族)를 의미하는 것"이며 굳이 한자로 표시하자면 解氏朝鮮이라고 하였다.

88) 최남선(1926), "檀君論", 115 주 4 참조

백제가 남천(南遷)하여 도읍한 곳 : 熊川(公州) 즉 곰내

고구려의 古都 : 國內

古麻, 蓋麻

그러므로 곰으로도, 즉 ‘大都 上京’의 뜻을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王)이라는 관용어를 써서 “왕+검”이라 했는지” 질문하고 왕의 뜻을 풀이한다. 왕은 고어의 음운론으로 볼 때 존중·주요의 뜻인 ‘엄’, ‘얼’의 대자(對字)로 볼 타당성이 높다고 하였다.”⁸⁹⁾ 따라서 왕검(王儉)은 ‘올곰’(혹 곰)으로서 크고 중요한 ‘왕국의 성읍’으로 상도(上都), 왕도(王都)의 뜻이라고 하였다.”⁹⁰⁾ 『한단고기』에도 왕검은 감군(監群)으로 지역의 우두머리라고 하였다.”⁹¹⁾

엄(主, 重) : 엄이(母), 엄(엄지), 엄청

얼(主, 重) : 얼(氣魂), 얼레빗(굵은 빗), 얼레미(굵은 채)

곰(大都 上京) : 古麻, 蓋麻, 곰말(金馬), 金城, 熊川(公州, 곰내), 國內,

올곰(王儉) : 上都, 王都

2. 왕검 곰신설(主神說)

고복선은 왕검은 ‘곰 또는 곰’으로 웅(熊)의 뜻이라고 한다. 그 근거로서 단군기 원주에는 왕검이 이주한 백악산을 일명 ‘곰미달’(今彌達)이라고 표기했는데, ‘곰미’ 또한 ‘곰’의 일음(一音)이라는 것이다.”⁹²⁾ 그리고 해모수의 아들 주몽(朱蒙)이 ‘고모’(古牟)로도 표기되듯이 환웅의 아들 왕검 역시 ‘곰’이라고 하였다.”⁹³⁾

89) 같은 글, 111.

90) 같은 글, 120.

91) 李箱, 『太白逸史 神市本紀』 : 임승국(1987), 184-185. 王儉則監群管境之長也

92) 고복선(1928), “동명왕과 단군”, 『現代評論』 제9호(1928, 10) : 『한국문화총서 1』, 209.

93) 같은 글, 205-206. 고구려 광개토왕 능비에 동명왕을 북부여 출신의 천제자(天帝子)로서 이름을 ‘朱蒙·鄒蒙·鄒牟·中牟’라 했는데, 주(朱)와 추(鄒)는 고어에 ‘古’로도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해’와 ‘개’는 같은 뜻으로 쓰였으므로 환웅과 해모

최남선은 왕검이 왕도(王都)를 뜻하는 지명(地名)이지만 동시에 단군의 인명이라고 한다. 인명으로서 왕검을 ‘임+검’으로 보고 그 고의(古義)는 주신(主神)이라고 풀이하었다.

“임은 主의 義요 검은 神의 義로, 합하면 神聖하신 主人의 義를 成하는 것이라 써 當時의 祭政一致임을 窺見할지니라.”⁹⁴⁾

이능화도 왕검(王儉 또는 王儼)은 주신(主神)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검은 고어(古語)로 신(神)이라는 명사이며, 일본어로도 가미(カミ)는 신이라는 뜻이다. 곱이 신의 뜻으로 쓰인 용례를 제시하였다.⁹⁵⁾

왕(王) : 임(王, 主)

검(儉) : 곱(神) → 곱쪽 또는 곱쪽, 곱실(龕室, 神室), 곱줄(儉, 神줄), 곱물(黑水, 神水)

3. 왕검 임금설(郡王說)

단(檀)과 환(桓)을 같은 뜻으로 여겨 단군왕검을 환검(桓儉)으로 보고 왕검(王儉)을 임금(王儉)으로 풀이한 첫 사례는 북애자의 『규원사화』(167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애자는 ‘王’을 ‘王’의 오자로 보았다. 사람들이 환검신인(桓儉神人)을 군장(軍葬)으로 삼으니 이 분이 바로 임금이며, 임금이란 군장의 뜻이니 신라의 이른바 니사곱(尼師今)도 이와 같은 종류라고 하였다.⁹⁶⁾

최남선은 왕검을 왕을 뜻하는 얼검이라 하였다. 얼검 중의 얼검을 ‘당굴얼검’이니 만왕의 왕이라고 하였다.⁹⁷⁾ 신채호도 왕검은 단지 임금을

수 역시 ‘곱수’의 뜻이라고 분석한다.

94) 최남선(1918), 18.

95) 이능화, “古朝鮮 壇君”, 『東光』 12 : 『민족문화총서 1』, 132.

96) 共推其子神人爲君長 是爲王儉 王儉者君長之意也 新羅所謂尼師今者亦此類也.

97) 최남선(1926), “兒時朝鮮” 6장. 14 Abstract.

뜻한다고 하였다. “‘임금’을 ‘王儉’이라 譯하며, ‘王’은 그 字義에서 소리의 初半을 취하여 ‘님’으로 讀하며, ‘儉’은 그 字音에서 소리의 전부를 취하여 ‘금’으로 讀”⁹⁸⁾한 것이라고 한다.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태백산 수두에 출현하여 스스로 上帝의 化身이라 칭하고 조선을 건국하였으므로 역대의 제왕들이 이를 본받아 칭호를 임금이라 하고 경성(京城)의 명칭도 임금이라 한 것이다.⁹⁹⁾

정인보는 왕검은 오늘날의 임금이겠지만, 고대에는 ‘한(칸)검’으로 읽었던 것이라고 한다.¹⁰⁰⁾ 한은 ‘汗, 韓, 駟’ 등의 기록으로 나타나며 소국의 군주(君主)에 대한 칭호이고, 검은 ‘天王, 天可汗’ 등 최고의 칭호이기 때문에 전(前) 조선의 왕이라야 사용할 수 있었다.¹⁰¹⁾ 따라서 향찰법으로 ‘王儉’을 읽을 때 “임검”으로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주동에 의하면 ‘검’은 왕의 고훈(古訓)으로 『삼국사기』에서 이두문으로 니사금(尼師今, 尼斯今)으로 표현되었고 상감(上監)으로도 사용되었다.¹⁰²⁾ 니사금은 ‘잇금’ (닛금)의 전음(轉音)으로 ‘잇는 임금’ (嗣王, 繼王)의 뜻이다.¹⁰³⁾

안호상은 왕검은 신의 뜻도 될 뿐만 아니라, 임금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말 ‘검(儉)’이 본래 그 첫째 뜻이 신(神)이요, 다음엔 이것이 변화된 둘째 뜻이 임금(임검=王)인 것이다.”¹⁰⁴⁾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음운이 변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왕검(王儉) : 한(칸)검→잇금(닛금)→니사금(尼師今, 尼斯今)→

98) 신채호(1982), 96, 91쪽에서도 “‘王儉’을 吏讀字도의 독음으로 해독하면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

99) 같은 책, 91.

100) 정인보(1935), 『始祖檀君』, 『동아일보』 1935. 1. 16—22 : 『한국문화총서 1』, 18.

101) 정인보, 『조선상고사연구 상』, 서울신문사, 58—61.箕畚 검의 한자로서 轉寫한 것으로 보고 검은 고조선 시대의 최고의 칭호로서 단군왕검의 왕검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箕, 蓋, 解가 모두 같은 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02) 양주동(1942), 8.

103) 양주동(1942), 『朝鮮古歌研究』, 慕竹旨郎歌

104) 안호상(1985), 『환웅·단군·화랑』(서울: 사립원), 155.

임금→상감(上監)

단군왕검이 임금이라는 주장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천명되기도 하였다. 『태조실록』에서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¹⁰⁵⁾이라고 하였다.

4. 왕검 선인설(仙人說)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이 1500년 이상을 통치하다가 후에 아사달(阿斯達)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어 1908세까지 살았다고 한다.¹⁰⁶⁾ 『삼국사기』에서도 평양성은 ‘선인왕검’(仙人王儉)의 도성이라 했다.¹⁰⁷⁾

이에 근거하여 이능화는 단군 왕검이 1908세로 산신이 된 것과 속과 마늘을 먹고 곰이 인간으로 변했다는 기록에는 선약(仙藥)과 불로장생의 도술(道術)에 비교되는 도교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고 분석했다.¹⁰⁸⁾ 산신(山神)이 곧 선인(仙人)이라는 것이다.

신채호도 ‘선인왕검’이라 함은 삼국시대의 ‘수두’ 교도의 일단을 ‘선배’라 칭하고, 선배를 이두자로 ‘仙人’ 또는 ‘先人’이라 기록한 것과 관련시켰다.¹⁰⁹⁾ 그러나 단군 왕검의 수(壽)가 1048세 또는 1908세라는 설이 있으나 신라말엽 “佛典의 語句로 朝鮮古史를 煥弄하는 불교도들이 印度古典의 3萬年·3千年·5百年 등 長壽를 가졌다는 佛祖에 倣하여 만든 말이라, 一駭의 가치도 없다”¹¹⁰⁾고 하였다.

그러나 최남선은 선(仙) 역시 후대의 도교의 영향으로 음역(音譯)된 것이며, 이는 고어의 ‘생명, 생활, 창조, 건립’의 관념이 있는 ‘술’(술인)에

105) 태조 1년 8월 11일(경신)

106) 서영대(1997),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윤이훈 외, 『단군—그 이해와 자료』, 58. 『용계시주』에는 1048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038년, 『제왕운기』에는 1028년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07) 『삼국사기』 고구려기,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108) 이능화(1981),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서울: 보성문화사).

109) 신채호(1982), 91.

110) 같은 책, 101.

서 유래한 것으로 분석한다.¹¹¹⁾ ‘신을 섬기고(仕神), 술의는(告祀) 일을 손또는 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 옛 종교(震域 古教)에서 “‘손’行을 仙으로 역하고 그 행자를 仙人이라고 칭”¹¹²⁾하였고, “이 ‘술’行을 勤修하는 이를 술은이라 일컫고, 술은이를 약하여 손이라”하였다고 추정한다.¹¹³⁾ 그리고 이 신선(神仙)을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皂衣仙人)이라 하고, 신라에서는 국선(國仙), 화랑국선(花郎國仙), 선화(仙花) 등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손은 신사(神社) 또는 그 제사장직을 지칭하며 지금도 언어적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섬기다(仕神), 술의는(告祀) : 손, 술은이

단군 왕검(壇君 王儉) : 仙·禪·先(神·鮮·震·辰)

또한 손을 다르게는 ‘신’이라고 부르고 ‘鮮, 震, 辰’ 등으로 한역하였다고 주장한다.¹¹⁴⁾ 우리 나라를 뜻하는 조선(朝鮮)이나 진역(震域)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분석을 통해 최남선은 단군, 왕검, 선인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진 말로서 장자(長子)-무적존자(巫的尊者)이며 동시에 천자(天子)-신인적(神人的) 군장(君長)이 틀림없다고 한다.¹¹⁵⁾

최남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선의 仙은 巫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였다. “震域 神道上的 仙 역시 巫者의 一名號임을 알면 仙人과 壇君과 王儉이 서로 意味를 통하고 稱謂를 섞어 하는 所以가 저절로 환해 질 것입니다”¹¹⁶⁾고 하였다. 그 근거로 지금도 지방에 따라 무를 선무당이라고 하고, 서낭당을 선앙당이라는 한다고 주장한다.

무(巫) : 산이, 화랑이, 선무당¹¹⁷⁾

111) 최남선(1926), “壇君論”, 122.

112) 같은 글, 126.

113) 같은 글, 128.

114) 최남선(1926), “兒時朝鮮”, 155

115) 최남선(1928), “壇君神典에 들어 있는 歷史素”, 237.

116) 같은 글, 236.

117) 최남선(1926), “兒時朝鮮”, 203.

서낭당 : 선앙, 선앙당, 설수당¹¹⁸⁾

안호상에 따르면 이 선인(仙人)이 신라시대에는 풍류도(風流徒), 국선화랑(國仙花郎)으로 지칭된다.¹¹⁹⁾ 임승국은 선(仙)은 단군에 대한 신칭(神稱)이라고 한다. 檀에 대한 발음은 ‘단’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발음도 있다. ‘單, 端, 檀, 檀’ 등도 모두 선으로 읽히며, 선은 ‘仙, 禪, 先’으로 적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단군은 ‘선군’, ‘선님’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¹²⁰⁾

IV. 결론

단군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허구라는 입장과, 단군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 기록이라는 입장이 오랫동안 대립되어 왔다. 유학자들, 식민사학자, 현대의 실증주의자들은 전자의 입장이고, 후자는 민족주의자들과 대종교 등 단군을 국조로 섬기는 종교단체들의 입장이다.¹²¹⁾

이 글을 통해 『삼국유사』 ‘단군기’에 나타나는 주요한 명칭인 단군, 왕검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남운은 단군은 정치적으로는 天孫이고, 문자적으로는 天君이고, 종교적으로는 主祭者 등등이라 하였다.¹²²⁾ 따라서 단군이나 왕검마저도 고유한 개인의 인명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군은 제정일치시대의 주제지장(主祭之長)을 지칭하는 무군(巫君)이거나, 천배자(天拜者)인 술인이(仙人)이거나, 수도단의 단주(壇主)를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서 고유인명이 아니라 직책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8) 최남선(1928), “檀君神典 古義”, 236; 최남선(1928), “檀君 及其研究”, 249.

119) 안호상(1985), 180-185.

120) 임승국 역주(1987), 365. “단군의 참 이름이 선군임도 모르고 있는 대종교의 민족신앙 계보에 대한 무지가 문제인 것이다.”

121) 이필영(1997), “檀君 研究史”, 윤이훈 외, 『단군—그 이해와 자료』, 82-138.

122) 김택규(1959), 82.

일찍이 신채호는 『단기고사』 중간서(重刊序, 1912)에서 “단기(檀奇) 2천년사가 반드시 실사(實史)가 있을 터인데 아직 상고할 때가 없는 것은, 여러 병화(兵火)를 겪으면서 역사를 보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어찌 통탄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지만,¹²³⁾ 해방전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최남선과 해방후의 대표적인 역사가 이기백은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부인하였다.

1900년 전후하여 일본 학자들이 단군신화를 불승(佛僧)의 날조라는 주장을 펴자, 최남선은 일제의 단군 격하 또는 말살정책에 맞서 “朝鮮의 人文的 모든 것이 檀君에 비롯함은 우리의 오랜 전통적 신념”¹²⁴⁾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최남선은 단군이 실사 실재 인격일지라도 현존 최고의 문서적 자료인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檀君古記는 형식상으로 一便의 신화’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檀君이 실사 역사적 실재 인격일지라도 그 記傳이 신화로 생긴 바에는, 기록 그대로가 사실 아닌 것은 무론입니다. 또 실사 그 意趣는 사실일지라도 그 설화적 結構에 나타난 요소 及 순서가 그대로 實史의 信文이 아닐 것은 무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이미 신화인 바에는, 역사적 素性 여하는 별 문제로 하고, 먼저 또 주로 神話學的 高찰을 시험함이 당연합니다.”

사료비판학적 입장에서 볼 때 신채호가 주장하는 사료들이 발굴된다 해도 기록된 문서는 2차 사료에 불과하므로 1차 사료인 유물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기백은 단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고고학적 유물로 검증하여 그 실사성(實史性)을 부인한다.

“예컨대 단군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생각해서 그를 건국의 始祖로 받들고 그가 건국한 연대를 B.C. 2333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 지식에 의하면 한국에

123) 고동영 역주(1993), 『단기고사』, 14.

124) 최남선(1928), “檀君 及其研究”, 『육당 최남선전집 2』, 242.

서 金屬文明이 시작된 것은 B.C. 8세기 경이거나 혹은 몇 세기 조금 더 올라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의 발생도 이즈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단군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이기보다는 무당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생각되고 있으므로 결코 역사적 인물로 다루기 어렵다.”¹²⁵⁾

그렇다고 하여 단군신화를 불승(佛僧)의 조작으로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단군신화에서 찾아야 할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한 신화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의 사상이요 또한 그들의 사회적 양상인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단군신화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¹²⁶⁾고 하였다.

최근 노태돈도 단군신화의 역사성에 대한 사료비판을 통해 이렇게 결론짓는다.

“가령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 해가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것이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농업경제와 청동기 문화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그런데 한반도와 남만주 지역에서 그런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될려면 빨라도 기원전 12세기를 올라갈 수 없다.”¹²⁷⁾

구전으로 전해 오던 단군신화가 기록된 것은 13세기경 고려시대에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이다.¹²⁸⁾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신화시대의 통치자 요(堯) 임금과 같은 시대에 건국하였으며, 중국 못지 않게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민족의식을 단군신화를 통해 반영한 것이다. 이 전승을 어어받아

125) 이기백(1988), “檀君神話의 問題點”, 『朝鮮史大觀』: 이기백 편, 『檀君神話論說集』 (서울: 새문사, 1987), 66.

126) 같은 글, 66.

127) 노태돈 편(2000),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사실과 상징의 변주곡”, 16.

128) 노태돈 편(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73. 현존하는 중국측 사료에 의하면 고조선은 늦어도 B.C. 4세기 중반에는 전국시대의 고대 중국인들에게 그 실체가 알려졌다.

민족적 위기시마다 단군전승이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¹²⁹⁾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민족의식의 상징으로 본 노태돈은 “이러한 의식 자체는 의미있는 것이지만, 실제 사실이 그러하였다는 것은 아니다.”¹³⁰⁾고 역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신화에 내재해 있는 민족의식의 내용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이용되어 왔다. 우선 종교적인 왜곡은 무수한 단군 관련 종교 및 민간단체가 이를 증명한다. 1980년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단군관련 종교단체가 135개에 달한다.¹³¹⁾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종교단체 중에는 종교혼합적인 성격을 띤 것도 많다. 단군을 고유인명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군관련 종교단체에서 단 한 사람의 ‘단군 영정(影幀)’을 봉안하여 숭배하고 있다. 단군을 내세우는 민간 단체들도 아무런 역사적 검증없이 ‘단군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단군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신시에 도우하여 우리 민족의 조상신(祖上神)이 되었다고 믿거나, 천제자(天帝子) 환웅과 인간의 몸을 얻은 웅녀 사이에 태어나 단군을 신인(神人)이신 대종(大宗), 즉 한배검으로 숭상한다. 그러나 임종국이 잘 지적한 것처럼 “신시개천의 주인공은 환웅천왕이지 단군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면 국경절의 하나인 개천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환웅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천절 행사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단군사화 운운하는 무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¹³²⁾ 그래서 송호수는 환웅 대신 단군이 강조된 것은 “단군을 종교화한 측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¹³³⁾고 하였다.

또한 단군신화는 정치적으로도 악용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단군의 역사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1894년 일본학자 백조고길(白鳥庫吉)과 나하통세(那珂通世) 등은 단군신화의 사료적 근거가 박약하며, 고려 중기에 일어난 민족주의 사조에 따라

129) 서영대(2000), 181-182.

130) 노태돈 편저(2000), 17.

131) 이강오, “단군신앙의 실태분석”, 『정신문화연구』 32권, 71-79.

132) 임승국 역주(1987), 33.

133) 윤이홍(1997), “단군문제에 관한 토론”, 711.

“승도(僧徒)의 망설(妄說)을 역사상(歷史上)의 사실(史實)로 삼은”¹³⁴⁾ 것이라는 소위 ‘단군승조론(檀君僧造論)’을 주장하였다. 단군은 부여의 시조일 뿐이며, 조선의 참된 시조는 박혁거세이고, 단군신화에 나오는 백악산, 즉 아사달은 경복궁 뒤의 북한산이라고 하였다. 심지어는 일본의 스사노오 미고도(素盞鳴尊)가 단군이라고 강변하였다.¹³⁵⁾

최근 북한은 1963년 이후 공식적으로 신화적 인물로 그 역사성을 강력하게 부정해온 단군을 정치적 이유로 역사적 인물로 복권시켰다. 1993년 단군릉을 발굴하고 이를 대규모로 개축하였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장우진 실장은 “평양은 조선 민족의 발상지”라는 글에서 “평양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는 력사의 도시입니다”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평양을 5대 인류 문명 발상지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평양을 발상지로 하여 이 지역에서 먼저 기원하였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겨레로 통일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⁶⁾

따라서 북한 당국이 단군릉을 건립한 정치적인 의도가 북한 중심의 남북통일의 명분과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¹³⁷⁾ 행여 “통일

134) 최남선(1926), 『檀君論』, 83-86. 일본학자들의 단군 말살론에 대한 자세한 비판을 참고할 것: 이필영(1997), 『檀君 研究史』, 88-89.

135) 이재원(1991), 19.

136) 백산자료원 편(1994),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서울: 백산자료원), 141.

137) 이형구 편(1999), 『단군과 고조선』(서울: 살림터) ; 김정숙(1997), “북한에서의 단군연구”, 『단군—그 이해와 자료』 윤이홍 외 편(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51-289; 최몽룡(1997), “북한의 단군릉 발굴과 그 문제점”, 같은 책, 290-289; 양태진(1997), “북한의 단군론 제기, 그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 304(97. 4), 194-203; 이선복(1997),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 시민강좌』 21(97. 8), 43-57; 조기수(1994), “주체사상론이 수정되고 있다: 미로의 주체사상에 단군신화 접목”, 『민족정론』 12(94. 7), 89-98; 정영훈(1994),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북한의 ‘단군공세’”, 『북한학보』, 18(1994. 10), 221-247; 이흥환(1995), “신화에서 현실로 돌아온 ‘북한 단군’”, 『시사저널』 303(1995. 8), 16-21; 임채욱(1998), “남북한의 단군인식과 통일문화형성”, 『극동문제』, 237(1998.11): 91-106.

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이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정치적 공세에 말려들지도 모를 일이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단군 말살책이나 북한 단군 복권책은 단군신화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실제적인 사례라 하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서에는 물론 단군에 대한 역사적 이해없이 단군신화의 신화적 요소만 들어 무조건 거부하려 한다든지, 반대로 비신화화나 학문적인 검증없이 역사적 사실로 무조건 수용하려는 것은 모두 편향된 사고의 반영이라고 하였다.¹³⁸⁾ 그리고 한국교회는 단군신화를 ‘민중의 이야기’로서 민족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인식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상고사를 깊이 탐구하여 그 결과로 얻은 역사적 진실을 민족적 에너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민족적 위기시마다 민중이야기로서 등장한 단군설화에 담긴 민족주의적 정신적 유산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신화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재정립하는 일은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138) 같은 글.

A Study on the Meaning of Dangun(檀君) and Wanggum(王儉) in the Myth of Old Chosun(古朝鮮)

Hur, Ho-ik

Assistant Professor

Taejon Theological Seminary

Taejon Korea

Recently, in South-Korea a private organization(韓民族文化協會) erected Statue of Dangun(檀君), written as the founder of the Old Korea in the History of Three Centuries(三國遺事), in the many public places as elementary or middle school. On the ground of Second Commandment, most of Korean churches, including the Kore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raised against the statue as a kind of idol worship.

Also, It was reported that in North-Korea, Dangun Tomb were rediscovered and rebuilt in 1993 at Pyungyang. Since 1963 North Korean scholars have denied Dangun as mythological fiction. But recently they consist that as historical person Dangun founded the Old Korea in Pyungyang, therefore Pyungyang must be the center of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argued whether the Myth of Dangun is only a mythological fiction or historical fact. Korean confucian scholars, colonialistic historians and modern positivist historians mainly regard it as a fiction. But many religious organizations which worship Dangun as nation father insist Dangun is a historical per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meaning of Dangun and Wanggum. Because they were old Korean but were transmitted as translated Chinese, so the original meaning was argued.

1. original meaning of Dangun may be the title of God-Man(神人 or 大倮) or Heavenly King(天君) or Shaman Priest-King(巫君).
2. original meaning of Wanggum may be the title of King's City(王都)

or Earthly King(主神), or King(임금) or Taoist Hermit(仙人).

3. It is certain that Dangun and Wanggum is not a proper noun and a name of historical person, but a title of the king or priest-king in the ancient Korea as Egyptian Pharaoh.

4. Therefore several Dangun were appeared in Korean history in Kyuwon Historical Story(『揆園史話』), Old History of Han-Dan(桓檀古記) etc.

5. There is no archaeological remains of Dangun as a Person. It's written materials also appeared after 13C. A.D. But, It must be disregarded the purpose of enforcing the identity of the nation implied in the Dangun Myth. In spite of that, it is dangerous that historicity of Dangun is grounded on an unofficial historical story without historical evidence.

In Conclusion, because Dangun is a name of the title, Dangun Statue of South Korea is a religious distortion of Dangun Myth. And Dangun Tomb of North Korea is a political distortion of it.